

묻지마 지지 사라진 대선 ... '망국병' 지역주의 해소되나

☎ '선택 2017' 대선 D-32

호남 출신 후보 없고 TK 후보 약세...영·호남 갈등 구조 희석 후보들 정책·비전 보고 선택 성숙한 유권자 의식 향상 계기로

'5·9 장미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영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지지'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드러났던 '망국병' 지역주의의 해소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호남 출신 대선 후보의 부재와 대구·경북(TK) 대선 후보의 약세로 인해 이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영호남 갈등 구도가 희석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을 시작으로 맹목적인 지역 후보 지지가 아닌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성숙한 유권자의 의식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야권의 텃밭인 호남은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야권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된 본선에서는 90% 안팎의 지지로 불표를 몰아주는 투표 성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호남 출신의 대권 후보가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체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불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대세론'을 앞세운 문 후보의 호남 강세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지면서 두 후보에 대한 고른 지지 성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후보의 호남 발전공약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선거 막판에 선택하는 투표 성

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양강'의 접전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JTBC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 유권자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응답률 18.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문 후보(45.1%)와 안 후보(39.1%)가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6%,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7%를 차지했다.

반면, 보수성향이 강한 TK지역에서는 보수 정당 후보의 약세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TK지역도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를 벗어난 투표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수의 구심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파면·구속되고 보수세력이 궤멸 위기에 몰리면서 갈 곳을 잃은 보수표심이 안 후보에 대한 '전략적 지지'로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일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뒤 5차 대선 구도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수 유권자 및 TK 지역에서 안 후보에 대한 선호 현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수 유권자나 보수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 보수·우파 대표주자를 자임하는 홍 후보나 유 후보 대신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후보에 대한 홍 후보나 유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문재인 대항마'로 안 후보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보수·TK지역 유권자들이 홍 후보나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안 후보에게 '울인'(다결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 후보가 보수의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심 보수층까지 안 후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반석”

제 61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김여송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황교안·안철수·추미애·박지원 등
정·재계 인사 200여명 참석



‘제61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인 김여송(왼쪽 두번째) 광주일보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1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6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신문상 시상식에 이어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의 환영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는 이 회장과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인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해 회원사 발행인 및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정·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가짜뉴스와 뉴스 편식 청정지역인 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신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반석이며,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기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이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신문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유통업체인 포털이 뉴스의 생산시장까지 장악하고, 뉴스의 가치까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문협회는 한국신문상, 신

문협회상, 신문의 날 표어공모전 시상식도 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육상 거치 실패 선박 위에서 선체 수색

소형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MT)로 세월호를 육상 거치하는 작업이 실패했다.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탓에 세월호의 육상 거치는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10일까지는 이송을 마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6일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수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로 세월호 선체를 드는 1차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선수와 선미 일부가 들리지 않았다”며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1차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중 테스트 결과 세월호 선체가 상당한 수준까지 들리긴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선체 선수와 객실이 있는 선미 일부가 들리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실패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테스트에 들어갔다. 2차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육상 거치가 늦어지면서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세월호 수색을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본부장은 “하루빨리 선체 수색을

해야 한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염원을 알고 있다”며 “육상 거치 전이라도 수색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 논란 ▶7면



신팔도유람 - 경남 통영

미륵산 무동력 루지 체험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책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